보즈하라 파일럿 다원

보즈하라 파일럿 다원은 규슈 올레 우레시노 코스를 따라 있는 차밭입니다.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차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우레시노 코스에서 유일하게 맑은 날에는 근처의 아리아케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.

보즈하라라는 이름은 '민둥한 벌판'을 뜻하며, 차밭이 되기 전의 척박한 땅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이전에는 경작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이 땅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. 이 땅을 구입한 우레시노시가 현재 파일럿 사업으로 차밭을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

과제: 과거와 현재

농장 개발 초기 단계에서 우레시노시는 예상치 못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. 인근 구릉지에 서식하는 멧돼지가 종종 차나무를 뿌리째 뽑거나 차밭을 헤집어서 풍작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현재 과제는 직원의 확보와 정착입니다. 차 재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레시노시에서는 첫물차의 첫 수확을 위한 일손밖에 모을 수 없습니다. 차나무는 정기적으로 손질을 해야 하는데, 일손이 부족하여 무성하게 자라는 차나무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즈하라의 첫물차는 세상 사람들이 우레시노 차에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